

구례 운조루 (求禮 雲鳥樓)

-이조중엽(李朝中葉)의 상류주택(上流住宅)의 일례(一例)-

金正基

〈國立博物館 考古課長〉

(1)

작년 11월 초순 필자(筆者)는 문화재관리국(文化財管理局)의 위촉에 의하여 전남 구례(求禮)와 해남(海南)의 민가조사(民家調査)를 실시하는 기회를 얻었다. 그 가운데 구례 오미리(五味里)에서 이 지방으로서는 매우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운조루(雲鳥樓)라고 불리는 이조중엽(李朝中葉)의 상류계급(上流階級)의 주택(住宅)을 조사하게 되었다.

이 주택의 세부(細部) 건축수법(建築手法)에는 특기할 만한 점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였으나 그 건물에 사용된 각부기(各部機)의 질(質)이나 그 규모(規模), 건물(建物)의 배치(配置) 등 불만한 점이 적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보아도 점차 그 유구(遺構)가 감소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.

(2)

이 주택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(土地面 五味里) 103번지이며 그 소유자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류증교씨(柳曾敎氏)이다.

주택은 구례읍에서 하동(河東) 쪽으로 약 8km 떨어진 대로변(大路邊)을 벗어나 북쪽으로 얼마간 들어간 곳에 10여호(餘戶)의 민가(民家)가 있는데 그 부락(部落)의 거위가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집들에 비해 한결 규모가 큰 기와집이 있어 대로변에서도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. 이 집의 뒤에는 삼태봉(三台峰)이라고 불리는 작은 산이 이 집을 둘러싸듯 서 있고 앞에는 멀리 오봉산(五峯山)이 보이며 그 사이에는 광대한 전답(田畓)이 전개되는 좋은 환경에 위치하였다.

이 근처는 원래부터 주택지로서 민간(民間)에 널리 믿어지고 왔던 풍수설(風水說)에도 합치(合致)되는 곳으로 이름 높았던 것 같으며 구조선총독부간행(舊朝鮮總督府刊行)인 〈朝鮮의風水〉에서도 「구례(求禮)의 금환낙지(金還落地)」란 제목으로 이 지방에 주택건립지(住宅建立地)의 길처(吉處)가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왔다 하고 있으며 이 류씨(柳氏) 집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주택건립시(住宅建立時)에 관한 구전(口傳)을 기록하고 있다.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이 부근의 자연환경이 주택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.

(3)

이 집 부지(敷地)는 동서가 약 50m(약 160척(尺)), 남북이 약 47m(약 150척)의 부정방형(不整形)으로 상류주택(上流住宅) 치고도 상당히 널찍하게 자리 잡았다. 부지의 남변(南邊)은 대문(大門) 앞이 되며 원래는 여기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(痕迹)이 남았고 동(東)에서 서류(西流)하는 맑은 소천(小川)이 흐르고 있고 서준(西邊) 역시 북쪽 산에서 흐르는 소천(小川)으로 구할(區割)되고 있다. 부지(敷地)의 동준(東邊)은 인가(隣家)와 흙담으로 구할(區割)되고 서준(西邊)은 그 바깥 밭과 돌담으로 경계지어져 있다. 건물은 대지 남쪽에 동서(東西)로 약간 남쪽으로 편재(偏在)하는 대문(大門)을 사이에 두고 행랑이 있고 그 안쪽 중앙부에 좀 동편(東偏)하여 거주부분(居住部分) 즉 안채와 안사랑 및 이의 부속건물(附屬建物)이 있고 그 서쪽에 나란히 접(接)하여 접객부분(接客部分)인 바깥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다. 또 대지(垞地) 동북우(東北隅)에 따로 장방형(長方形)으로 돌담으로 구할(區割)된 속에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사당(祠堂)이 있다.

이들 건물군(建物群)의 유존 현황(遺存 現況)은 이외(以外)로 양호하여 대문(大門)채 행랑의 일부(一部)가 결실(缺失)되고 바깥 사랑마당에서 안사랑마당으로 통하는 중간 및 그에 따르는 건물이 해체(解體)되고 안사랑의 동쪽에 연속되는 건물이 일부(一部) 없어졌을 뿐이며 그 밖의 건물들은 그 대부분이 잘 남아 있고 근래에 와서 약간의 보수(補修) 혹은 미미한 개조(改造)를 볼 수 있으나 그것도 거의가 복원(復原)이 가능하다. 또 이들 소규모(小規模)한 보수(補修) 또는 개조(改造)도 그 부분의 부촌(部村)에 묵서(墨書)로 된 중수명(重修銘)이 있어 주택 개수(改修)에 하나의 자료(資料)가 될 수 있어 흥미로웠다.

이 주택의 역사적인 유래(由來)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로서는 전세고문서(傳世古文書)를 보지 못하였기에 건물상량문(建物上樑文)과 구전(口傳)에 의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.

상량문(上樑文)은 이집 바깥사랑 마루방 종도리 및 장식 하면(下面)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「용용용승정기원후삼병신추구월기사십육일갑술진시입량정정(龍龍龍崇禎紀元後三丙申秋九月己巳十六日甲戌辰時立樑鼎鼎)」이라고 되었다. 이것으로 이 집이 영조(英祖) 52년(1776년)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. 또 「갑술하육월갑신삭십칠일경자신기시중수(甲戌夏六月甲申朔十七日庚子辛巳時重修)」란 중수기록(重修記錄)이 연달아 쓰여 있었다.

또 이 주택의 소유자 류증교씨(柳曾教氏)의 말에 의하면 씨의 7대조(代祖)인 전라도 낙안군(樂安郡)[현(現) 보성·순천군] 군수(郡守), 삼수부사(三水府使) 등을 지냈고 끝벼슬이 종삼품(從三品)에 이른바 있는 류우주(柳雨冑)가 200년 전에 경북 해안면 입석리(解安面 立石里)에서 낙안군수(樂安郡守)를 지낼 때 이주하여 이곳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.

(四)

이 구전(口傳)은 전기(前記)한 상량문(上樑文)과도 일치하며 믿을 수 있는 것 같다. 이 주택의 평면구성(平面構成)을 보면 대문(大門)을 중심으로 동서(東西)로 전개되는 대

문(大門), 행랑(行廊)채와 현거자(現居者)들이 “큰사랑”이라고 부르는 바깥사랑채, 그리고 일부(一部) 제거(除去)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안채와 사랑채가 구자형(口字形)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 이것이 주거부분(住居部分)을 형성한다. 그밖에 귀족주택(貴族住宅)에서 비교적(比較的) 잘 볼 수 있는 별당(別堂)은 없고 대동북우(垚東北隅)에 사당(祠堂)이 있다. 여기서 이들 건물을 개관(概觀)하면 다음과 같다.

[대문(大門) 및 행랑(行廊)] 대문(大門)은 그 앞에 있어 지금은 거의가 매몰된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을 건너면 바로 그 앞에 다다른다. 문 바로 동쪽에 하마석(下馬石)이 있으며 문은 솟을문으로 그 지붕이 그 좌우 행랑(左右 行廊)보다 한층 더 높다. 초석(礎石)은 상면(上面)이 평탄한 큼직한 할석(割石)으로 되어 그 위에 일준(一遵) 22cm의 각주(角柱)를 세웠다. 문 정면(正面)은 3.3m 측면(側面) 즉 양행(樑行)은 3.0m로서 그 문짝은 높이 3.0m여(餘), 폭 1.35m이며 두께 3.5m의 판자(板子)문이다. 대문(大門) 밑에는 흔히 문턱이 있는 법이나 여기에는 당초부터 그것이 없었으며 주인(主人)의 말에 의하면 2품 이상의 자(者)가 사용할 수 있는 초헌(招軒)의 출입을 위하여 이를 단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. 문 상부(上部)에는 홍살을 세웠고 그 중앙에 주두골(駐頭骨)을 걸었다. 이것을 어떤 사람은 호두골(虎頭骨)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호두골(虎頭骨)이었으나 그것을 도난당해 마두골(馬頭骨)을 대신 걸어 놓았다고도 한다. 필자(筆者)의 본바는 주두골(駐頭骨)이 아닌가 한다. 이것은 금기물(禁忌物)의 침입(侵入)을 막기 위한 주술적(呪術的)인 것 같다. 행랑(行廊)은 대문(大門) 서쪽에 6간(間) 동쪽에 11간(間)이 있는데 양행장(樑行長)은 동서(東西) 모두 동일하나 행장(行長)은 동서(東西)가 달라 동쪽은 한 칸이 2.7m이며 동쪽은 서단(西端)의 두 칸을 제외하고는 대문(大門)의 그것과 같은 3m여(餘)나 된다. 이들 행랑은 당초에는 문직이를 비롯한 하인(下人)들의 방과 차여고(車輿庫) 또는 우마사(牛馬舍)들이었을 것인데 현재는 동단(東端) 일부에 사람이 살고 있고 곡간(穀間) 창고(倉庫) 등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제거되었다.

[사 랑]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주택(住宅)에는 바깥사랑과 안사랑이 있다. 하기가 이 주인(主人)의 말에 의하면 바깥사랑을 큰사랑 안사랑을 작은사랑이라 하고 그 작은사랑에 연달아 동쪽에 안사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 덕(宅)에서 내(內)·외(外)사랑을 대(大)·소(小)사랑과 혼칭(混稱)하던 사이에 생긴 오전(誤傳)으로 생각되며 주택의 평면배치상(平面配置上)으로 보아 역시 원래부터 사랑(舍廊)은 두 채였고 바깥사랑과 안사랑으로 칭(稱)함이 옳을 것이며 그것을 큰사랑, 작은사랑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바깥사랑은 거의 독립된 한 채의 건물로 되어 사랑 동쪽에 문이 있어 그를 들어가서 동절(東折)하여 내문(內門)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 안채와 연결된다. 안사랑은 대문(大門)을 들어서 지금은 제거되어 없어진 행랑(行廊)채와 그 북단(北端)에 있었던 중문(中門)에 접(接)하여 북쪽에서 동쪽으로 전개되는 것이었다. 그 규모(規模)를 바깥사랑에 비교하면 훨씬 적고 또 부기(部機)나 시설(施設) 등도 좀 떨어지는 것이다.

바깥사랑은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(正面)에 나타나는데 높이 약 1.2m의 기단(基壇) 위에 다시 약 22cm 정도의 낮은 단(壇)이 있어 그 위에 섰다. 기단 중앙부(基壇 中央部)에는 폭 약 1.4m되는 6급(級)의 석계(石階)가 있다. 이들 기단(基壇)이나 석계(石階)는 모두가 잘 다듬어지지 않은 큼직한 할석(割石)을 사용하였다. 기단(基壇)의 동단(東端)은 안사랑의 서측면(西側面)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부석로(傾斜敷石路)가 되었고 이 경사부석로(傾斜敷石路)를 올라오면 내문(內門)에 통하는 바깥사랑 동단(東

端)의 문(門)이 된다.

건물은 정면 육간(正面 六間)이며 동단(東端)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. 각 주간(各 柱間) 거리는 동일(同一)하지 않아 문폭은 2.7m, 다음 두 칸은 각 2.3m, 다음 두간(間)은 각 약 2.5m, 그리고 서단(西端) 루(樓)마루는 2.7m이다.

행장(行長)은 약 4.0m되는 넓은 칸으로 서단(西端) 끝만 측면 중앙(側面 中央)에 기둥이 있을 뿐이다. 지붕은 단부(端部)가 팔각지붕이 되고 동단(東端)은 맞배지붕으로 그 끝이 안채 “곳간”끝 지붕과 직각(直角)으로 연결하게 된다. 초석(礎石)은 일변(一邊)이 1~1.5m의 방형(方形) 또는 부정형(不整形)으로 된 거대한 화강암(花崗岩)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동단(東端)에 있는 온돌방(溫突房) 뒷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원주(圓柱)이다. 이 기둥의 직경(直徑)은 30~35cm로서 그 높이는 3.2m이다. 평면(平面)은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쪽에서 두 칸은 온돌방(溫突房) 가운데 두 칸은 마루방, 그리고 서단(西端)의 한 칸은 루(樓)마루로 되었고, 또 마루방(房) 서반부(西半部) 뒤쪽에 소위 “글방”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루방(房)과 온실방(溫實房)이 북쪽으로 돌출(突出)한다. 동단(東端)의 온실방(溫實房)은 원래는 두 칸이 한 방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두 방으로 갈라 쓰고 있고 그 천장(天障)은 격자천장(格子天障)이다. 이 방(房)의 앞문은 보통 보는 곁문이며 방 뒤 서쪽에 작은 문이 달려 있다. 마루방은 천장가구(天障架構)는 없고, 연등천장이며 온돌방과의 사이에는 사매(四枚)의 장지(障紙)문이 있고 루(樓)마루와의 사이에는 사판(四板)의 판자문이 달려 있다. 이 마루방(房) 동쪽 문 위에는 「귀만와(歸晚窩)」 그리고 서쪽 상부(上部)에는 「운조루(雲鳥樓)」란 현판(懸板)이 걸려 있다. 이 마루방 앞은 각주간(各柱間)에 삼분각(三分閣)의 띄살문이 있고 뒤쪽에는 “글방”으로 통하는 판자(板子)문이 있다. 루(樓)마루는 삼방(三方)이 개방(開放)되어 천장(天障)은 영등천장(天障)으로 셋까래 끝이 곱게 다듬어 진 것을 잘 볼 수 있다. 개방(開放)된 삼방(三方)에는 계자난간(鷄子欄干)을 돌려 「이산루(二山樓)」 「핍간정(乏間亭)」 「원석(員石)」 등의 현판(懸板)이 걸려 있다. 이의 옥개가구(屋蓋架構)는 삼량(三樑)으로 매우 간단한 구조이며 마루방 중앙만은 평삼량(平三樑)으로 되었다. 지붕처마는 홀처마로 굽직한 연목(椽木)을 걸고 있다. 그리고 온돌방(溫突房)과 마루방 앞에는 뒷마루를 놓았으며 뒷마루밑 기둥은 고(高) 약 65cm, 하부경(下部徑) 약 25cm로 위에서 굽기가 작아지는 화강암(花崗岩)·팔각석주(八角石柱)로 되었으나 이것은 원래 이를 위해 마련된 석주(石柱)가 아니고 사랑(舍廊) 앞에 계획했던 차양(遮陽) 기둥에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. 이를 보면 이 뒷마루는 건립초(建立初)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건립(建立)된 얼마 후에 가설(架設)된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. 마루방 뒤쪽에 있는 “글방”은 매우 소규모의 방으로 지붕은 이 사랑채와 따로 막배지붕으로 되었다. 온돌방(溫突房) 동쪽에 있는 문은 초석(礎石)은 역시 화강암(花崗岩)의 비교적 큰 석기(石機)를 사용하였고 기둥은 각주(角柱)로 일변(一邊) 25cm 정도이다. 문짝은 두짝이며 대문문에 비해 좀 작으나 중(中) 1.1m 고(高) 2.5m여(餘)의 이러한 문으로서는 매우 큰 편이다. 내부(內部)는 흙바닥이며 사랑 온돌방을 위한 분구(焚口)가 있고 사랑 옆문에서 곧바로 나아가면 사랑 후정(後庭)으로 가는 소판문(小板門)이 있고 또 ㄱ자(字)로 동절(東折)하면 안마당에 통하는 내문(內門)이 있다. 내문 역시 그 크기는 전자(前者)와 비슷하다. 이 부분의 천정(天井)은 위쪽이 다락방이 되기에 널로 다락마루를 짚기에 그 밑이 보이게 된다.

안사랑은 바깥사랑 동남(東南)쪽에 있어 후설(後說)하는 안채와 아울러 구자형(口字形)의 양면(兩面)쪽 일각(一角)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으며, 그 남단(南端)은 남쪽으로

돌출한 루(樓)마루가 되며, 그 서쪽 바깥에 「귀래정(歸來亭)」이란 현액(懸額)이 달렸다. 이 루(樓)마루 뒤는 온돌방이 되었고 그 방 동쪽에 고(庫)간이 연결되나 원래는 고(庫)간 같지가 않고 몇몇은 방(房)이었을 것이리라 짐작된다.

이 안사랑 역시 바깥사랑 기단 상부(基壇 上部)의 낮은 일단(一段)을 제거한 것과 같은 높이로 그 서변(西邊)은 경사부석로(傾斜敷石路)에 누(樓)하고 있다. 초석(礎石)은 비교적 큰 화강암 할석(花崗岩 割石)으로 기둥은 모두 일변(一邊) 25cm의 각주(角柱)이다. 누(樓)마루는 삼방(三方)이 개방(開放)되지 않고 좌우(左右)엔 띄살문이 달렸고 남쪽만은 삼분각(三分閣)의 띄살문으로 문을 걸어올릴 수 있도록 되었고 서쪽에는 좁은 마루를 깔고 난간(欄干)을 달았다. 이 뒤쪽 온돌방과 이 누(樓)마루는 현재 사용치 않고 파손도 심하여 창고 같이 잡기구(雜器具)를 수납(收納)하고 있다. 주간(柱間)은 각각 3.1m로서 지붕은 남단(南端)이 우진각지붕이고 북단(北端)은 곡간(現 계사(鷄舍)) 한 칸을 더 부속(附屬)하여 뒤쪽 안채에 달린 곡간지붕 밑에 연결(連接)된다.

[안 채] 안채는 고(高) 약 60cm의 할석(割石)을 쌓아올린 기단상(基壇上)에 놓인 주옥(主屋)과 이보다 좀 낮은 기단 위에 놓여 주옥(主屋)의 동(東)·서(西) 양단(兩端)에서 南나쪽으로 오는 두 동(棟)의 곡간채로서 형성된다. 주옥(主屋)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이 주택에서는 가장 지붕이 높고 양측(兩側) 곡간채는 주옥(主屋)과 지붕을 연결(連接)하여 맞배지붕으로 되었다. 주옥(主屋)은 서쪽에 두 칸이 한 방이 된 온돌방(溫突房)[안방]과 동쪽 역시 두 칸이 한 방으로 된 마루방(대청(大廳))이 있으며 이들 앞에는 중(中) 1m의 툇마루가 놓였다. “안방”서쪽은 남북(南北)으로 매우 길고 또 보통 주택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부엌이 있으며, 마루방 동쪽에는 두 칸의 남북(南北)으로 놓인 온돌방이 연결되고 북쪽은 “옷방” 남쪽의 것을 “작은방”이라고 부르고 있고 “작은방”은 그 지붕의 일부(一部)가 동쪽 곡간채 지붕밑에 들어간다. 이들 건물 초석(礎石)은 큼직한 괴석(塊石)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은 전면 중앙(前面 中央) 즉 방 앞, 마루 끝의 세 개는 직경(直徑) 약 27cm의 원주(圓柱)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일변(一邊) 25cm 정도의 각주(角柱)이다. 각 주간(各 柱間)은 약 2.5m이고 양행장(樑行長)은 3.5m나 된다. 마루방 뒤부분에는 중(中) 약 70cm 툇마루가 있고 “안방” 뒤는 부보(復補)로 된 툇마루가 동반(東半)에 놓였으며 서반(西半)은 개수(改修)되어 안방 뒷문이 열렸다.

“안방” 전면(前面)은 보통 볼 수 있는 겹문을 주간(柱間)에 가설(架設)하고, 마루방과의 사이는 후부(後部)에 소벽(小壁)을 두고 앞쪽은 삼분각(三分閣)의 장지(障紙)문, “옷방”과 마루방 역시 이와 똑같이 되어 이를 걸어올리면 도합 다섯 칸을 모두 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. 마루방 뒷문은 주간(柱間)에 각각 양개(兩開)되는 판자문을 가설했다. 부엌은 개조된 부분이 많으며 그 넓이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으로 보아 그 일부가 원래는 창방 등 다른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.

주옥(主屋) 부엌에 달결(達結)하여 그 남쪽에 두 칸의 곡간이 있어 내문(內門)과 연결되며 이 두 곡간은 음사(飲事)에 관계된 식품·조미료 등을 격납(格納)하는 곳이며 바닥은 널마루를 깔았다. “작은방” 남쪽은 한 칸의 작은 부엌과 두 곡간이 연결되며, 그 남쪽 및 안사랑 동쪽 곡간에 일부 건물이 제거되었다고 한다. 이들 곡간은 모두가 다락방으로 되었다.

[기 타(其他)] 그 밖의 건물로는 대지(埜地) 동북우(東北隅)에 사회(四回)에 돌담을 둘러 그 가운데 한 칸의 사당(祠堂)이 있을 뿐이며, 바깥 사랑마당 서남우(西南隅)에 있는 변소 및 축사(畜舍)와 동변(東邊) 담 중앙 부근의 변소들은 모두 후세(後世)의 것으

로 특기할 만한 것은 없으며, 주인(主人) 말에 의하면 바깥사랑 서남부근에 화단(花壇)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그 흔적(痕迹)을 볼 수 없으나 있음직한 말인 듯 하다.

(2)

이상(以上) 이 주택에 대하여 개설(概說)하였다. 이 주택은 약 190년 전(前)에 건립된 것으로 당시 낙안군수(樂安郡守)였던 고급지방장관(高級地方長官)의 사저(私邸)로서 이조시대 상류주택(上流住宅)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. 특히 내(內)·외사랑(外舍廊)이 있어 거기에 각각 루(樓)마루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상류주택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의 위세(威勢)를 짐작케 한다. 이 두 사랑(舍廊)의 사용은 현(現) 소유자의 말에도 「보통 지방장관(地方長官)은 바깥사랑(舍廊)에 오지 못하고 도지사(道知事)쯤 되는 사람이야 여기에 앉을 수 있었다.」라고 한 것과 같이 바깥사랑(舍廊)은 고급관리 적어도 이 주택의 주인과 동위치(同位置) 또는 그보다 상위의 내객(來客) 즉 귀빈을 접대하기 위한 사랑(舍廊)이라고 생각되며, 안사랑(舍廊)은 일반내객(一般來客)에 대한 접대용(接待用)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짐작된다. 그럴 경우 이 내(內)·외사랑(外舍廊)에 거주한 자는 어떤 사람일 것일까. 아마도 군수재가시(郡守在家時)는 물론 바깥사랑에서 거처(居處)하였으리라 생각되며, 안사랑은 그의 부(父) 또는 성년의 자(子) 등 당시 재가(在家)하는 주인(主人)이 거처(居處)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. 그리하여 현재 제거되어 없으나 바깥사랑마당에서 안사랑마당에 통하는 중문(中門)과 그에 연이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행랑(行廊)은 청직이방을 비롯하여 마부(馬夫) 등 하인(下人)의 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.

전체 주택의 규모를 본다면 당시 주택규모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 귀족으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주계 품위(住階 品位)에 따라 가사제한(家舍制限)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서 유제자(諭制者)도 많아 몇 번을 재확인 또는 강화하기도 해왔던 것인데, 이것은 그 제도에서 본다면 60여 간(餘間)이나 되는 저택(邸宅)으로서 대군(大君) 60간(間)을 넘는 것이다. 이 저택의 건립자가 군수시절(郡守時節)에 지은 것이라 하니 당시의 군수(郡守)의 위세(威勢)를 말하던가 또는 그 당시의 가사제도(家舍制度)의 문란하였음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.

그러나 여하(如何)를 비교적 유존상태(遺存狀態)가 양호하고 몇몇 개수(改修)된 곳이 있기는 하나 이는 쉽게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이며 희귀(稀貴)한 일로서 아무리 소규모의 개수(改修) 또는 수리(修理)일지라도 그 수리된 부근에 묵서(墨書)로 개수(改修) 또는 수리연대(修理年代)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주택사 연구(住宅史 研究)에 하나의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.

점차(漸次) 그 유존수(遺存數)가 감소되는 이러한 주택자료, 특히 이 지방에서는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귀족주택(貴族住宅)의 한 실례(實例)로서 보존책(保存策)이 잘 강구되어 후세(後世)에 남겨짐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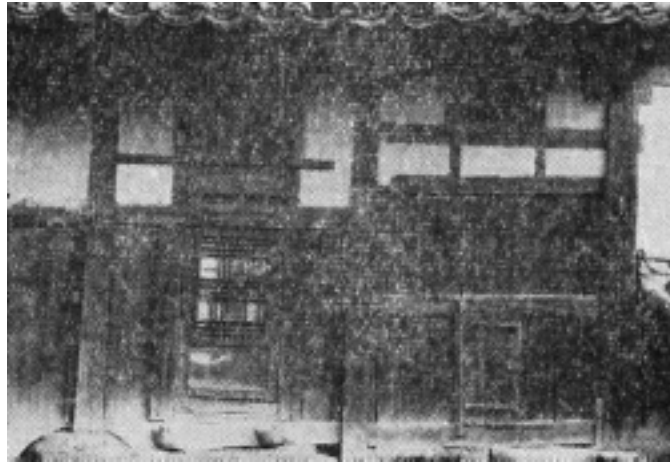
바깥사랑 뒤 공부방 합각(合閣) (북쪽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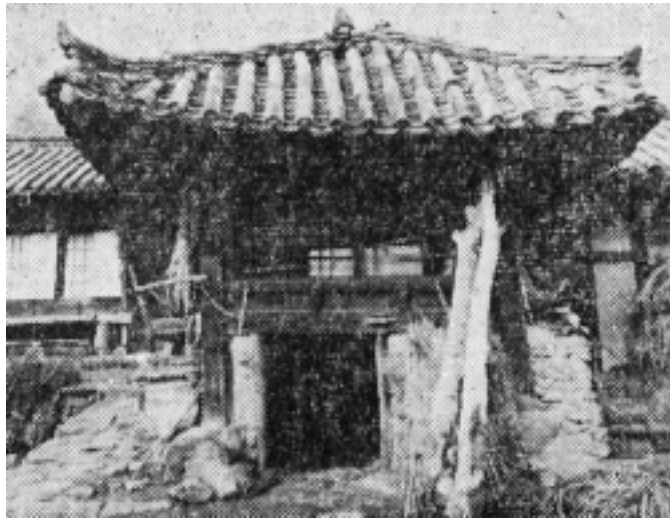
바깥사랑 (남쪽에서)



<대문(大門) 서남(西南)쪽에서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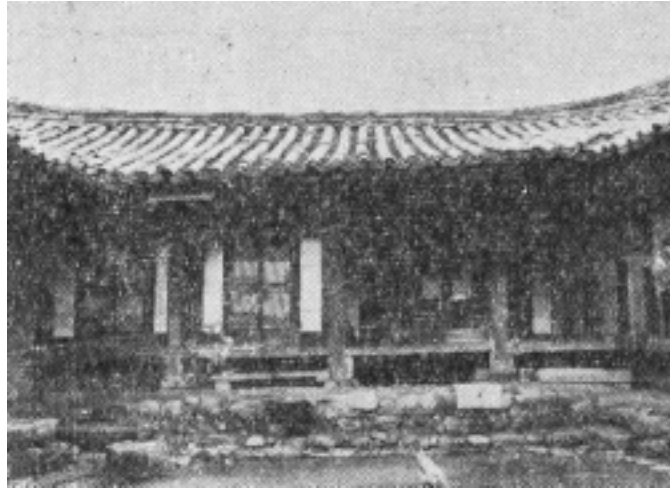
〈안채 동쪽곡간 (서쪽에서)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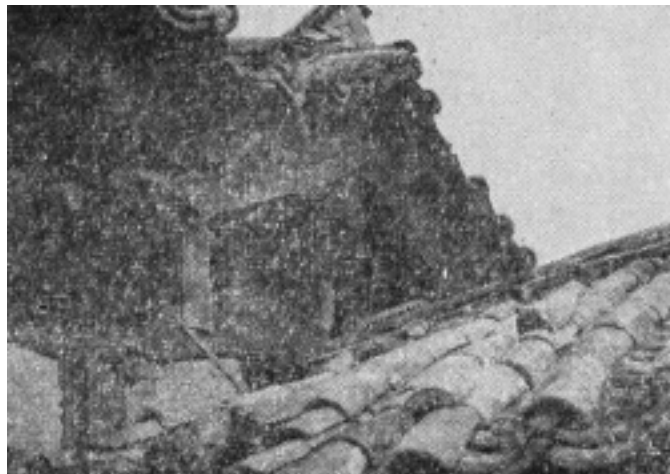
〈안사랑 루(樓)마루 (남쪽에서)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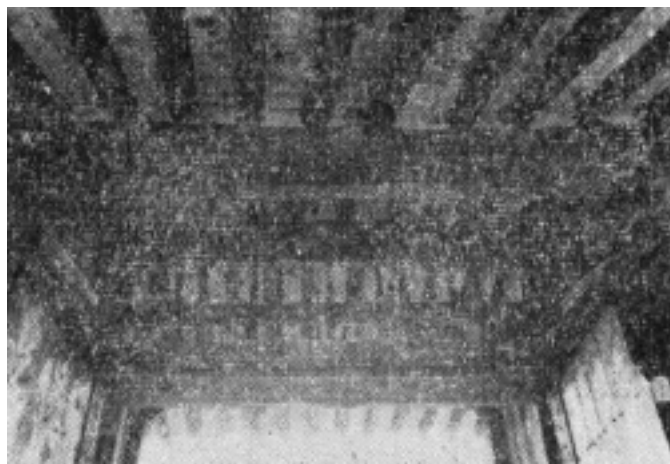
〈안사랑 (서쪽에서)〉



<안채 (남쪽에서)>



<바깥사랑과 안사랑 및 안채 서쪽곡간 지붕 축부(觸部) 접서남(接西南)쪽에서>



<대문상부(大門上部) (북쪽에서)>



구례운조루(求禮雲鳥樓) 평면도(平面圖)